

과방위 국감 ‘보안’ 최대이슈 기업체계·정부대응 도마 위로

증인 명단에 통신 3사 CEO 포함
해킹사고 경위·방지책 등 추궁

KT 사장 교체 외압논란 여부 따져
네이버·카카오도 질의대상 포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설전 예고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보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 만큼, 기업의 보안 체계와 정부의 대응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플랫폼·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총 92명 증인과 44명 참고인을 채택했다.

◆통신3사CEO 줄소환…보안 거버넌스 전면 점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다. 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 등 핵심 서버에서 가입자식별번호(IMS)와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KT는 펌토셀(초소형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외주 보안업체를 통한 정보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모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세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 대응 부실, 재발 방지책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 과징금 부과가 잠정 결정됐고, KT는 수백만원대 피해를 호소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용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보안 체계와 정부 대응 프로세스의 허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권 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투자 계획을 내놨다.

◆KT 사장 교체·인앱결제·플랫폼 질의도

KT 사장 교체 과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KT의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논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논란도 재점검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질의대상이다.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에게는 인공지능(AI) 활용과 검색 알고리즘 문제를, 이정규 전무에게는 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묻는다.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은 기업 메시지 상품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방송 정쟁 재점화…이진숙 전 위원장 증인 출석

정치권 공방의 불씨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자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그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된 일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통위 운영 논란을,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맞설 전망이다. 과방위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 글로벌 AI 선도기업과 미래생태계 발전방향 모색

내달 3~4일 ‘SK AI 서밋’ 열어
최태원 회장, 기조연설 나서
성장전략·최신 AI 기술 공유

SK는 국내외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 함께 AI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SK는 ‘SK AI 서밋 2025’를 내달 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에너지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으로 3만명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AINow & Next’를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벤만 엔트로픽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 엔비디아 반도체엔지니어링총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AI 인프라, AI 메모리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올해 세계 AI 주도권을 놓고 여러 국가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 회장은 ‘오늘의 혁신 실행(AINow)’과 ‘내일의 도약 준비(AI Next)’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K가 추진해온 AI 생태계 구축 여정과 성장 전략을 공유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SK AI Summit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SK그룹과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해온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은 SK와의 협업 성과와 함께 추가 도약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SK그룹 멤버사 중심으로 꾸려졌던 전시는 올해 스타트업, 학계, 해외 기업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AX 등 SK그룹 멤버사들은 AI 인프라, AI 모델, AI 전환(AIX) 역량을 선보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신 AI 기술력을 전시해 국내에서 글로벌 AI 동향을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 SK그룹의 AI 역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학생들도 참가해 미래 AI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대행사로 AI 개발자 행사 ‘SK AI 서밋 2025 클라우드 코드 빌더 해커톤’도 열려, 벤만 엔트로픽 공동창업자가 참가자들과 AI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AI 생태계에 관심 있는 이들이면 누구나 이번 서밋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 U+, ‘유플투빨’ 참여건수 1500만 돌파

매달 ‘유플투빨데이’ 쿠폰 사용 가능
오는 28일까지 스타벅스 제휴 행사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시작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빨’의 누적 참여건수가 1500만 건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유플투빨은 쇼핑, 식음료,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객은 ‘당신의 U+’ 앱에서 매달 열리는 ‘유플투빨데이’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제휴사는 CGV였으며, 컴포즈 커피와 다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롯데시네마·오션월드를, 20대는 밀리의서재·배달의민족을, 30대는 노브랜드·매드포갈릭을 주로 이용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객은 오는 28일까지 ‘당신의 U+’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0만 원권(3명) ▲CGV 티켓2매+콤보세트(100명) ▲BBQ 황금올리브치킨+콜라 1.25L(500명) ▲스타벅스 카퍼라페T(1000명)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스타벅스



10월 대표 혜택 소개 페이지. /LG유플러스

‘스타위크(STARWEEK)’ 행사도 열린다. VVIP 고객은 하루 8개, VIP 고객은 5개의 별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별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음료나 베이커리로 교환할 수 있다.

유플투빨에는 현재 47개 제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랜드, 클룩, 아놀자, 스피드메이트, 윈더파크 등에서 숙박·여행·장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 합류한 제휴사는 ▲우버(첫 탑승 1만원 할인) ▲BBQ(전매뉴 주문 시 반마리 무료) ▲넛온리포투데이(20% 추가 할인) ▲사조물(행사품목 30% 할인) ▲바이트미(상품권 5000원 증정) ▲풍당(3+1 혜택)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규로 ‘U+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응모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AI 해외 인재 정보제공 정책설계 시급”

SPRi “글로벌 AI 3대 강국 위해
실효성 있는 인재 유입정책 필요
생태계·지원시스템 조성해야”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심화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기업의 디지털 인재 확보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글로벌 인재 유입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인재를 채용했거나, 향후 6개월 내 고용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SPRi가 작년 9~10월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글로벌 인재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에는 디지털 인재 채용 권한을 가진 기업 직원 171명이 참여했다.

기업의 애로 사항은 채용 주기별로 달랐다. 해외 디지털 인재를 뽑을 때는

▲글로벌 인재 정보 획득 ▲디지털 인재 역량 검증 ▲채용시 의사소통 문제를, 고용 후 인력 관리에서는 ▲업무시 의사소통 문제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 적응 ▲해외 인재와 가족 정착 지원 부족을, 업무 진행 중에는 ▲영어 등 타국어 사용을 위한 추가 부담 ▲글로벌 인력 관리 직원 부족 ▲한국 기업 문화 적응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SPRi는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채용 박람회, 학회 및 콘퍼런스, 대학의 기업 설명회 등 채용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적한 디지털 해외 인재 역량 검증을 위해 기술 역량 표준을 마련하고 역량 검증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해당 분야 경력(50.3%), 전공 분야(32.2%), 임금·한국어 실력 등(8.7%), 출신 국가

(4.7%), 출신 대학(4.1%) 순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은 해외 인재 관련 정보 제공이었다.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해외 인재 고용시 보조금 지급, 글로벌 인재 국내 정착 비용 지원이 뒤를 이었다.

SPRi는 “해외 디지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면 단편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전반위적 유입·정착·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 확보시 기업이 당면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 특성에 맞춘 비자를 개발하고 비자 갱신 기간 연장, 체류 자격 전환의 유연성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인재의 국내 체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어 교육, 기업 문화 적응 지원, 주택·학교 등 생활 관련 도움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ik1@